

## 금강반 학습 계획

2019년 10월12일

담임: 류민희

시간	수업내용	교재 및 장소
1교시 (9:30~10:00)	금강반 단어 #2 퀴즈 맞춤법 연습	숙제 학습계획 P.1~2
2교시 (10:00~11:00)	<읽기와 이해하기> 한글날 특집 NIE 한글공부 70대 "글 몰라 은행 문 앞서 벌벌 떠는 게 싫었어"	학습계획 P3~5
(11:00~11:20)	점심	카페테리아
3교시 (11:20~12:00)	<짧은 글 쓰기> 할머니의 목소리로 글쓰기	학습계획 P. 6~7
4교시 (12:00~12:40)	사물놀이	강당

숙제 - 학습계획 P. 7의 짧은 글 쓰기를 완성해 오세요.

- 단어리스트 #3(P. 8~12)을 공부하고 문장을 적어오세요.(다음 주 퀴즈)

알림: 다음 주는 고급과정 글쓰기 수업이 있습니다.

글쓰기 반 준비물과 숙제를 잊지 마세요.

## 금강반 단어 퀴즈 #2

이름: \_\_\_\_\_

틀린 갯수: \_\_\_\_\_

- 다음 각 단어의 뜻을 영어로 적으세요.

1. 원수: \_\_\_\_\_
2. 장래: \_\_\_\_\_
3. 충동: \_\_\_\_\_
4. 산골: \_\_\_\_\_
5. 생명: \_\_\_\_\_
6. 벼랑: \_\_\_\_\_
7. 봉오리: \_\_\_\_\_
8. 머슴: \_\_\_\_\_

- <보기>에서 알맞은 동사(verb)를 골라 문장에 어울리게 고쳐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모질다   고꾸라지다   앞지르다   꺾다   수군거리다   가라앉다
---

9. \_\_\_\_\_ 겨울을 이겨낸 보리들이 새파랗게 살아난 보리밭 길을 걸어갔다.
10. 용이는 작대기를 찾아와 책보통이를 모두 \_\_\_\_\_ 달았습니다.
11. 저 밑에서 따라 올라오던 아이들이 모두 용이를 \_\_\_\_\_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2. 아이들은 용이를 뒤돌아보면서 저희들끼리 무엇을 \_\_\_\_\_.
13. 발꿈치에 돌맹이가 찔렸습니다. 그 바람에 용이는 앞으로 \_\_\_\_\_.

<맞춤법 연습>

1.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    )안에 O, 틀리면 X를 하고 맞게 고치세요.
  2.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늦게까지 자도 되. (            )
  3.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꼭 A를 받지 않아도 되요.(            )
  4. 유진이는 내년 가을에 고등학생이 됐다. (            )
  5. 호진이는 분주히 오느라 숙제를 안가지고 학교에 왔다. (            )
  6. 나는 어제 깜빡 잊어 버리고 숙제를 하지 안 왔다. (            )
  7. 진이는 어제 책을 살려고 서점에 갔다. (            )
  8. 헤린이는 바이올린 연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            )
  9. 재민이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노래를 부른대요. (            )
  10. 친구가 능숙하게 문제를 풀어주어서, 잘 깨달을 수 있었어요. (            )
  11. 나는 친구와 수업을 들으면서, 그 친구를 조금씩 잘 알게 되었다. (            )
- 아래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를 치고, 맞게 고치세요.

1. 가끔식 가족들 때문에 부끄러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

2. 철부지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외국인한테 말할 때가 창피해요.

---

3.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동생한테 조용히 하라고 예기했어요.

---

4. 저는 월래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

5. 친구가 놀림을 당하고 있을 데,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읽기와 이해하기>

## 한글공부 70대 "글 몰라 은행 문 앞서 벌벌 떠는 게 싫었어"

"쌍기역 받침이 들어가는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조기를 '억다'" "배추를 '뉘다'" "열무를 '숙다'".

지난 1일 오전 11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창세학교에선 한글 강의가 한창이었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은 학생들 입에선 온갖 식(食)재료 이름이 튀어나왔다. 학생들은 한 손엔 샤프펜슬을, 다른 손엔 지우개를 쥐고 한글 강사 황영미(50)씨의 칠판 필기를 따라 공책에 한글을 써내려갔다. 남낙순(76)씨 등 할머니 16명이다.

남낙순 할머니는 아픈 어머니 곁에 있느라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돼 학교를 그만뒀다. 공부엔 때가 있다더니, 한 번 때를 놓치니 그 길로 그만이었다. 친척들은 "영특하던 아이가 바보가 됐다"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했다. 커서 시집을 갖고 웬만한 살림은 척척 해냈지만, 글을 모르니 은행일만큼은 남편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못 배운 게 한(恨)이 됐고, 70년 만에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공부 대신 엄마를 택했던 건 후회 안 해. 돌아가신 엄마는 임종 직전까지 내 이름만 불렀거든. 하지만 더는 은행 문 앞에서 벌벌 떨기 싫었어."

까막눈이었던 이모(55)씨는 죽음의 문턱에 두 번 다녀오고서 국어책을 들었다. 간경화(\*liver cirrhosis)를 심하게 앓던 이씨는 15년 전 11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2012년에는 아들에게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죽음을 준비하던 이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새 삶을 얻고 나니 글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한다. "늦게라도 배워야 해." 이씨가 한글을 배우고 쓴 첫 번째 시(詩) '나의 2모작 삶'의 한 구절이다.

'악바리' 조정자(66)씨는 이날 교실 맨 앞줄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에 연방 고개를 끄덕였다. 충부 충주에서 6남매의 맏딸로 태어난 조씨는 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 시절 큰딸은 집안의 살림 밑천이었다. "어려서 못 배운 팔자(八字)가 어디 가겠어?" 어려선 동생을 업어 키우고 커선 돈을 벌어 동생들을 학교 보냈다. 아들도 대학원 공부까지 시켰다. 언제부턴가 아들이 못 알아들을 '유식한' 말을 쓰면 "그래, 나 글자 모른다!"며 자주 화를 냈다. 조씨는 "한글학교에서 글을 배우고부터 아들과 마음으로 화해했다"고 했다.

정태선(68) 할머니는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만 65세가 되자마자 한글학교에 등록했다.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빠듯한 살림에 차비가 부담됐어." 정씨는 어릴 때 '계집아이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초등학교를 접었다. 육십이 넘어 학교를 어렵게 다시 찾았지만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다. "학교에 오면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식은 땀이 줄줄 나. 이 나이에 한글을 배우려니 정말 어렵더라고. 그렇지만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다닐 거야."

때를 놓쳐 한글을 배우지 못한 한국의 문맹(文盲) 인구는 264만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6.4%에 달한다.

2015.10.09

[출처] 조선닷컴

□ 윗 글을 다시 한번 잘 읽고 각 할머니들의 사연을 정리해 보세요.

할머니 성함	한글을 못 배운 이유는?	한글을 배우게 된 동기는?

## <쓰기>

- 오늘 공부한 '한글공부 70대 "글 몰라 은행 문 앞서 벌벌 떠는 게 싫었어"'를 다시 한 번 읽고 할머니 중 한 명을 선택하세요.
- 자신이 그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적어 보세요
  - 어렸을 때 한글을 배우지 못한 사연
  - 나이가 들어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
  - 한글을 배우면서 드는 기분, 느낌 등등, 이야기에 살을 붙여 보세요. Be creative!

<예시 by 한라반 박형은>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했다. 육남매의 큰 딸로 태어나 일이 너무 많았다는 말이다. 동생들 업어 키우고, 공부 시키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날 챙겨주지 않았고 내 고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 내가 힘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난 집안에서 맏딸이다.

그 시절에는 딸로서는 집안일을 하며 시집을 잘 가는 것이 효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동생들을 돌보며, 공부 할 시간도 없으므로 학교도 못 갔다. 그렇게 내 인생을 보내며 동생들이 하나 하나 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았다. 잘 살고 있는 동생들을 보면 시원섭섭하다. 나도 큰 딸로서 안 태어났으면 한글도 알며 학교도 다녔을까?

그렇게 살아왔던 나는 결혼도 했고 아들도 한 명 있다. 아들은 교육도 받아, 대학원도 다녔다. 그때는 아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터 아들이 유식한 단어로만 얘기해, 한글을 모르는 엄마를 아는 아들한테 화가났다. 나도 그렇게 한글을 아직도 모르는 내가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난, 한글을 배우기 위해, 한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원하는게 있으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며 배웠다. 나도 한글을 배워가니까, 신기하고 내 자신한테 뿌듯했다. 그리고 한글을 알면서 아들과 하는 대화도 쉬워지며, 나와 아들 관계가 좋아졌다.

어릴때 한글을 배우는 건 좋고 쉽다. 한글을 알면 살아가는 삶도 쉬워진다. 그러므로 일찍 배우는게 좋다. 너무 늦으면, 뇌도 너무 늙어서 배우기 힘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처럼 꾸준히 노력해 배울 마음이 있으면, 노인으로서도 한글을 배울수가 있다.

[illegible]



<숙제>

## 금강반 단어리스트 #3      이름: \_\_\_\_\_

- 다음 단어들은 오늘 공부한 ”한글공부 70대 ”글 몰라 은행 문 앞서 벌벌 떠는 게 싫었어”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각 단어의 뜻을 공부하고 밑줄 친 빈 칸에 예문을 따라 적으세요.

1. 서리: frost

예문) 오늘 아침에 첫 서리가 내렸다.

---

2. 필기(하다): take notes, 노트에 적다    \* 필기도구: writing supplies, 필기시험 : writing test

예문) 서경이는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필기했다.

---

3. 영특하다: smart, 영리하다

예문) 비록 한글은 아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호진이는 영특한 아이이다.

---

4. 웬만한: tolerable, 평균보다 나은 정도의, 그럭저럭 괜찮은

예문) 이모는 눈이 높아 웬만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으려 한다.

---

5. 척척: easily, without hesitation, 거침없이

예문) 수학을 잘하는 동준이는 웬만한 수학문제는 배우지 않아도 척척 풀 수 있다.

---

6. 한: deep resentment, sorrow     \* 한이 맺히다: have deep resentment

예문) 못 배워 한이 맺힌 할머니께서는 칠십의 나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셨다.

---

7. 임종: death, passing, 목숨이 끊어지는 것

예문) 할아버지께서는 임종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는 듯 했다.

---

8. 까막눈: illiterate, 글을 모르는 사람

예문)그 남자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다 보니 늘 무시당한다.

---

9. 문턱: threshold

예문) 그 여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

---

10. 이식: transplant, implant

예문) 할아버지께서는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으셨다.

---

11. 기적적: miraculous    \*기적: miracle

예문)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

12. 간절하다: be eager to, desperate

예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

13. 구절: paragraph, passage

예문)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한 구절씩 읽도록 시키셨다.

---

14. 연방: in quick succession, 연달아, 연이어

예문) 진이는 교실 맨 앞줄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에 연방 고개를 끄덕였다.

---

15. 밑천: seed money

예문) 취업이 안되어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밑천이 없다.

---

16. 팔자: destiny, fortune

예문) “아이고, 내 팔자야.” “개팔자가 상팔자다 (It must be a blessing to live as a dog)”

---

17. 유식한: knowledgeable, 아는 것이 많은 (반댓말: 무식한)

예문) 까막눈인 그 친구가 유식한 척 하느라 애쓰는 모습이 딱하다.

---

18. 화해(하다): reconcile, 싸움을 멈추고 나쁜 감정을 풀다.

예문) 나를 골탕먹였던 친구와 화해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

19.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간절히 하고 싶다. \*굴뚝: chimney \*

예문)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학교가 끝나려면 두 시간이나 남았다.

---

20. 빠듯하다: tight, 돈이나 시간의 여유가 없다.

예문) 빠듯한 살림 때문에 영특한 누나는 대학에 못 가고 결국 취직했다.

---

21. 접다: give up, 계획이나 생각을 포기하다

예문) 비가 온다고 해서 콜롬버스 데이에 단풍구경을 가려던 계획을 접었다.

---

22. 문맹: illiteracy, 글을 모름      \* 문맹률(illiteracy rate)

예문)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매우 낮다.

---

23. 성인: adult, 어른      \* 미성년자: 성인이 되기 전의 사람, 한국에서 19세 미만

예문) 한국에서 성인은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말한다.

---

24. 달하다. reach, 목표, 정도, 장소에 이르다.

예문)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1.3명에 달하고 있다.

---

25. 사연: story, circumstance

예문) 그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